
K-Food⁺ 수출 확대 전략

2023. 2. 23.



농림축산식품부

순서

I. 추진 배경	1
II. 수출 동향	2
III. 여건 및 전망	5
IV. 현 상황 진단 및 추진방향	6
V. 정책목표 및 추진 과제	8
1.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	9
2.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	12
3. 수출시장 다변화	17
4. 수출확대 추진체계 정비	19

I. 추진 배경

□ 농식품(K-Food)은 수출 비중은 작지만, 꾸준히 성장한 유망분야

○ 신규시장 개척 노력과 한류 확산 등으로 지난 20년간 약 4.6배 성장

- 특히, 최근 3년간 농식품 수출액은
연평균 8% 성장

* 수출액(억불): ('03) 18.6 → ('08) 30.5 →
('13) 57.2 → ('18) 69.3 → ('22) 88.2



○ 농식품 수출은 소비시장 확대,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와 함께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 창출

- 또한,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

* 수출 부가가치율은 농림어업(80.5%)·식료품(73.9)이 타분야(반도체 67.2, 자동차 70.7 등)보다 높으며, 농림어업(20.7명, 백만달러당)·식료품(17.8)의 취업유발효과도 전체(6.7) 보다 높음(한국무역협회, '20)

□ 수출 대상을 K-Food⁺까지 확대, 농산업 소분야 혁신 동력 창출 필요

○ 전세계 196개국('22)으로 수출 중인 K-Food는 전후방으로 연계된 스마트팜·종자 등의 수출로 이어지는 시너지 창출

* 국토가 협소한 네덜란드는 우수 종자 개발, ICT 기술 도입 세계 최대 수직농업 센터 운영 등을 통해 '21년 세계 3위 농식품 수출국으로 성장

○ 농식품 수출 증가는 '생산량 증대 및 품질 제고 수요 증가 → 스마트팜·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발전'의 선순환 가능

▶ 농식품과 스마트기술,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로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K-Food⁺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
II. 수출 동향

- '22년 K-Food⁺ 전체 수출은 118억불로, 전년대비 5.7% 증가
 -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, 농기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 창출

- (농식품) 역대 최고치인 88.2억불로 전년 대비 3.1% 증가
 - * 신선 농산물(약 16억불, 전체 수출의 약 18%)이 1.4% 감소하였으나, 가공식품(약 72억불, 82%)이 4.2% 증가하여 수출 상승세 견인
 - 적극적 시장 다변화 정책으로 신규 전략국* 수출이 증가하였고,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K-Food 긍정적 인식 제고**
 - * 신규 전략국 수출 : 캐나다(1.5억불/21.3%↑), 호주(1.9/15.4↑), 몽골(1.0/28.6↑)
 - ** 미국 시청자 대상 K-Food에 대한 긍정적 인식 조사 결과, K-Food 광고 시청 집단이 미시청 집단에 비해 약 30% 높음
- (스마트팜) '22년 약 1억불 수준으로 일본·중국 등 아시아권 및 사우디·UAE 등 중동 국가 진출

사례: UAE 스마트팜 수출

- 한-UAE 비즈니스 포럼(1월) 참여 바이어 대상, 한국 스마트팜 생산 토마토·딸기 시식회를 개최하여 맛·품질 등에서 호평
- 스마트팜 기업(농심·포미트, 우듬지팜, 올레팜) - UAE 기업간 56백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MOU 체결



- (농기자재) 농기자재(농기계, 비료, 농약, 종자) 수출은 '22년 26억불, 주요 수출품목인 농기계는 전년 대비 18.2% 상승
 - * (농기계) 1,742백만달러, (비료) 580, (농약) 231, (종자) 56
 - 농기계는 북미 시장 정원용 트랙터 수출 확대에 힘입어 '22년 역대 최고 수출(17억불) 달성, 비료·농약도 꾸준히 증가
- (동물용 의약품) 동물용 의약품 수출은 3.7억불로 원료, 화학제제, 의료기기 등 수출 품목 다변화

① 농식품 :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주력 분야

- '22년 농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88.2억불로, 전년 대비 3.1% 증가
 - 고물가·고환율, 현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, 한류 확산에 따른 K-푸드 인기 및 현장애로 해소 노력 등에 힘입어 성장세
 - (국가) 주요 수출 시장인 일본·아세안·유럽·중동을 중심으로 증가, 중국·미국은 코로나 확산, 경기 둔화 등으로 소폭 감소
 - * 수출국 현황: ('20) 191개 → ('22) 196(+5개국 : 나우루, 투발루, 나미비아, 부룬디, 카보베르데)
 - (품목) 신선 농산물(15.8억불, 전체 수출의 약 18%)이 1.5% 감소하였으나, 가공식품(72.5억불, 82%)이 약 4.2% 증가하여 상승세 견인
 - * (신선) 배(74.4백만불, 3.6↑), 유자차(56.4, 6.6↑) 등 과실류 수출은 증가, 엔저 등 영향으로 채소류(293.8, △9.9), 화훼류(12.4, △24.8), 김치(140.8, △11.9) 등 대부분 감소
 - * (가공) 한류 영향으로 라면(765.4백만불, 19.5↑), 음료(513.3, 5.8↑), 주류(364.9, 12.8↑), 과자류(622.7, 1.4↑) 등 대부분 품목이 전년 대비 증가

② 스마트팜 : 중동 등 전략시장으로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

- '22년 스마트팜 수출액은 약 1억불 수준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음
 - '21년까지 주로 일본·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비닐 또는 유리 온실 중심 수출이 이루어졌으나,
 - '22년 이후 쿠웨이트·사우디·UAE 등 중동 지역에 수직농장 진출 확대
 - 최근 순방을 계기로 기업 간 MOU 3건 체결(1.16.) 등 성과 가시화
 - * 농심·포미트, 우듬지팜, 올레팜 등과 UAE 기업간 56백만불 규모 MOU 체결(1월)

③ 농기자재 : 농기계는 급성장, 타분야는 소폭 증가

□ 농기자재(농기계, 비료, 농약, 종자) 수출액은 '22년 약 26억불 달성

* (농기계) 1,742, (비료) 580, (농약) 231, (종자) 56

○ (시장) 농기계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며, 비료는 동남아, 농약은 동북아, 종자는 중국·미국의 비중이 높은 편

* (농기계) 미국(77%), 호주(3), (비료) 태국(20), 일본(13), 인도(12)

(농약) 중국(38), 일본(18), 브라질(10), (종자) 중국(24), 미국(15), 인도(11)

○ (품목) 전체 농기자재 수출 중 66%를 차지하는 농기계 수출실적 급성장으로 전년대비 18.2% 상승하였고, 품목별로도 상승세 지속

- 농기계는 북미 시장 정원용 트랙터 수요 증가, 농약은 제초제 브라질 최초 등록 등을 통해 중남미 시장의 수출확대

④ 동물용의약품 : 반려동물 증가세와 함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

□ '22년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3억 7천만불로, 최근 10년간 연평균 11% 성장세, '22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'21년 대비 1% 감소

○ (시장) 총 119개 국가에 약 1,300여개 품목 수출,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(12.5%), 베트남(10%), 브라질(8.9%) 등

○ (품목) 전체 수출 품목 중 원료(전체 수출의 44.3%)가 전년 대비 13.7% 증가, 완제품 중에는 화학제제 및 의료기기 수출 증가

* 전년대비 증감율: 화학제제(17.6%), 의료기기(10.5), 의약외품(3.1), 사료첨가제(△24.7) 등

⑤ 해외건설수주 : 저개발 지역 진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분야

□ '22년 해외 농업기반 시설 사업의 용역 수주는 23백만불 수준

○ 동남아·아프리카 등 농업기반시설 공사는 종합적인 수자원 개발 등으로 규모화

○ 중국, 인도 등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, 한국의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개도국에서 수요가 높아 확대 기대

* 우간다, 가나 등 개도국은 농업·농촌 개발에 우리나라(농어촌공사)의 참여 요청

Ⅲ. 여건 및 전망

◇ 식품시장 및 전후방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한류 열풍을 적극 활용시 K-Food⁺를 주력 수출 상품으로 육성 가능

□ **(식품산업)** 식품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, 최근 우리의 강점인 IT·BT를 활용한 신산업은 큰 폭으로 성장

○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, 전세계 식품산업(제조업)은 꾸준히 증가 전망('20: 75,384억불 → '25: 102,570, Globaldata)

○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

- (푸드테크) 대체식품, 간편식 등의 푸드테크 상품*들은 식품산업 전체 성장률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

* 대체식품('20~'30, 18.6%, Bloomberg), 식품프린팅·로봇('20~'25, 16.1%, ResearchandMarket) 등

- (그린바이오)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은 빠른 성장세*를 보이고 있으며, 식품첨가물·발효식품 등이 큰 비중 차지

* 세계 그린바이오 분야 시장: ('20) 12,207억불 → ('27) 19,208(연평균 6.7%↑)

□ **(전후방산업)** 스마트팜, 농기계 등의 전후방산업은 성장 잠재력 풍부

○ (스마트팜) 과학기술 발전·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여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은 연평균 9.8% 성장(Marketsandmarkets, '20)

*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(온실 구조·설비 비용 포함하여 추정) : ('20) 374억불 → ('27) 571

- 기후여건으로 노지재배가 어려운 UAE·사우디 등 중동국들은 식량 안보를 중점 과제로 추진 중으로, 스마트팜 수요 증가 전망

○ (농기계 등)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농기계 산업이 성장 중이며, 자율주행 트랙터·로봇은 큰 폭의 성장 전망

* 농기계: ('17) 1,260억불 → ('21) 1,570 / 자율주행 트랙터: ('20) 10.9 → ('25p.) 25.9

□ **(한류 활용)** K-팝·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인기와 코로나 이후 건강 중시 트렌드로 K-Food에 대한 관심도 지속 전망

* 한국 문화 콘텐츠 인기도: 5년 연속 '한식' 1위('22년 해외한류 실태조사)

IV. 현 상황 진단 및 추진방향

◇ **글로벌 스탠더드** 수준의 역량을 갖춘 수출 주체를 육성하고, 한국산만의 **차별화되는 품질 超격차** 확보 필요

- **(신선 농산물)** 안정적 물량 확보·마케팅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형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품질 제고 필요
 -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통합조직의 **안정적 물량 확보**가 필수적이나 **계약물량 미이행** 등의 문제 발생
 - 안정적 물량 확보, 품질관리, 마케팅 등의 역량을 갖춘 수출통합조직을 집중 육성·관리할 필요
 - 경쟁국(중국: 샤인머스켓, 대만: 배)에서 **국내산과 유사한 맛·품질**을 갖춘 농산물들을 생산하고 있어 **후발 주자와 격차 유지** 필요
 - 해외 소비자 입맛에 맞는 **품종 발굴·개발**과 함께, 신선도·품질 유지를 위한 **유통·물류 효율화**도 필요

사례: 수출통합조직K-Berry(딸기)

- 전국의 38개 생산자법인과 54개 수출업체로 구성(자본금 375백만원), 딸기 전체 수출액의 96%(55백만불, '22년) 담당
- 품질관리, 유통개선, 공동마케팅, R&D 등 사업 수행('22: 약 33억원)



- **(가공식품)** 환율 변동 등 대외변수에 따른 원료수급 문제, 검역·통관 등의 규제 변화에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필요
 - 장류·김치 등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**현지 생산 증가**와 타국 유사 제품 생산·판매로 수출에 애로가 있어 품질 제고 필요
- **(신산업)** 푸드테크, 그린바이오, 펫푸드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**스타트업·중견기업**에 대한 투자 지원 필요
 - 신산업 분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R&D 등을 통한 **차별화된 기술**을 확보하고 **제품을 개발**할 필요

□ 미·일·중 중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, 품목별 맞춤 지원 필요

- 아세안·중동 등으로 시장 다변화가 촉진되고 있으나, 美·日·中 등 기존 수출국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

* 전체 수출액 중 美·日·中 비율: ('17) 44% → ('19) 48 → ('22) 46

- 다만,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유럽·중남미·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떡볶이, 라면, 소주 등 K-Food 인지도·판매 증가세

* '21년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오징어게임은 미국·인도 등 81개국에서 시청 1위를 기록하였고, 드라마에 등장한 라면·달고나 등의 판매도 급증

- 1억불 이상 수출품목은 '22년 기준 11개*에 불과하여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목별 맞춤형 지원·마케팅 필요

* 라면, 음료, 커피조제품, 쌀가공식품, 설탕, 펫푸드, 비스킷, 조제분유, 인삼, 김치 등

□ 스마트팜·농기자재·동물용의약품 등 농업 전후방산업은 주요 수출 정책에서 벗어나 있었으나, 수출 가능성이 풍부

- 그간 농업분야 수출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식품 중심이었으나, 해외의 경우 스마트팜·농기계 등이 빠른 속도로 성장 중
- 최근 UAE 순방 계기 스마트팜 MOU 체결 등 K-Food⁺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, 유망분야 집중 발굴·육성할 필요
- ODA 등을 수출과 연계, 한국 농식품·전후방산업 수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

V. 정책목표 및 추진 과제

비전

K-Food⁺ 수출을 통한 농산업 혁신 동력 창출

목표

◆ '23년 K-Food⁺ 수출 135억불 달성

- * [농식품] '22: 88억불 → '23: 100 → '27: 150
- * [전후방산업] '22: 30억불 → '23: 35 → '27: 80

주요 과제

과제 ①

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

- [신선] 수출통합조직 육성 및 유통·물류 효율화
- [가공] 업체 경영안정 및 품질제고 지원
- [新산업] 푸드테크, 그린바이오 등 유망산업 집중 육성

과제 ②

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

- [스마트팜] 해외 시범온실 조성 등 진출기반 확대
- [농기자재] 신시장 개척, 기술개발 등 지원
- [동물의약품, 해외건설수주] 신규 시장 개척 및 전략사업 타겟팅

과제 ③

수출시장 다변화

- K-Food⁺ 수요가 높은 신규 시장으로 진출 확대
- 주요 수출 품목 마케팅 지원 강화

추진 체계

- K-Food⁺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
- 자금지원체계 확충
- 애로해소 및 정보제공

1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

1-1. [신선] 수출통합조직 육성 및 유통·물류 효율화

◆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수출통합조직 육성

- **(조직육성)** 물류비 폐지('23: 516억원)에 대응, 예산 감축분을 수출통합조직의 마케팅 및 품질관리 역량 제고에 집중 지원
 - 수출통합조직 연차적 확대('22: 10개 품목 → '27: 20)
 - * ('22) 딸기, 파프리카, 버섯, 포도, 배, 감귤, 키위 등 10개 → ('23) 사과, 배추 추가
- **(제도정비)** 민간기업형 수출통합조직 육성을 위해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* 및 수출업체 의결권 확대(20% 미만 → 40)
 - * ('23) 딸기, 파프리카, 버섯 → ('24) 배, 토마토 → ('25) 포도, 절화
- 안정적 수출물량 조달을 위해 수출통합조직 참여 농가 계약물량 이행 기준*을 설정하고('25년까지 60%), 우수농가 인센티브** 지원
 - * 현재 감귤(70%), 딸기(60%), 파프리카(30%), 토마토(10) 등의 품목에만 있는 상황
 - ** 품질관리 기자재, 기능성 포장재 등 수출통합조직 지원사업 우선·추가 배정

◆ 수출에 적합한 유통·물류체계를 확립하고, 신제품 육성

- **(유통기술 개발)** 신선도 유지기술 고도화 및 고급·기능성 포장재를 개발*하고, 해외 운송 중 부패 억제를 위한 첨단 특수포장재** 보급
 - * 딸기, 포도 등 30여 개 신선농산물의 생산·저장·유통 등 수출 유통과정의 품질개선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3년간 총 165억원 투자('23~'25, 농촌진흥청)
 - ** 우수한 방수효과, 통기성, 반사율로 결로방지 및 적정온도관리('23: 3,200톤 규모/2억원)
- 선박 운송이 많은 배·토마토 등에 CA컨테이너*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매뉴얼** 마련을 통해 상품성·선도 유지
 - * CA기술: 대기 환경을 조절을 통해 농산물 호흡미생물 생장 등 억제하여 농산물 선도 유지
 - ** 배·복숭아 등 일부 CA적용 수출, 딸기·참외 등 16개 품목의 국가별 적용 조건 실증('23)

- **(물류 효율화)** 운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 물류 인프라 강화 기반 조성
 - 수출국 입항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체계* (콜드체인) 구축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해 수출통합조직 중심의 공동포워딩** 추진
 - * ('22) 중국, 베트남, 태국 → ('23) 싱가포르, 유럽
 - ** 공동으로 운송사와 운임 협상, 화물의 포장·적재·보관·운송·통관 등 조정
 - 딸기 등 항공 수송 품목은 상용화주* 및 저온창고를 활용하여 선도유지
 - * 항공화물을 직접 보안검색 및 포장하고 보관·운송업무를 수행 현재 2곳(서울항공, CALT) 지정운영
- **(신품종 육성)** 베트남·홍콩 등 국내 농산물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마켓 테스트를 실시하고, 수출국별 선호·입맛에 맞는 유망 품목* 발굴·개발
 - * (딸기) 비타베리, 하이베리, 알타킹 등 / (포도) 홍주씨들리스, 레드클라넷 등
 - 수출농산물의 고품질 상품생산을 위한 품종별 표준재배기술 정립

1-2. [가공] 업체 경영안정 및 품질제고 지원

- **(경영안정)** 식품기업 대상 원료·원자재 운영자금 지원 확대*
 - * 운영자금('23: 4,584억원): 금리 인하(2~3%p) 적용 대상 우수 수출기업 확대(45%→55)
 -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토록 수출보험 지원 확대('22: 업체당 8천만원 → '23: 1억원) 및 對일본 수출업체 대상 보험 자부담 한시 면제(~6월)
- **(품질제고)** 김치·인삼 등 전통식품은 연구기관과 기능성 R&D를 추진하고 日·美 등에 기능성 표시제품 수출 지원
 - * 기능성 성분 및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SR 활용 현지 제도 등록 지원
 - 수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김치(7톤), 장류(2톤) 종균 개발·보급
- **(인증지원)** 유기농, Global GAP, 할랄, 코셔 등 수출에 필요한 인증비용을 지원(업체당 최대 4천만원)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
- **(물류)** 글로벌 물류기업 및 디지털 수출물류 플랫폼 활용 컨설팅* 지원
 - * 수출운임 비교 건적, 수출대상국 내 운송방법 및 운임 효율화 방안 등 제공

1-3. [新산업] 푸드테크, 그린바이오 등 유망산업 집중 육성

- **(푸드테크)** 산업을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, 주요 핵심 분야 R&D를 통한 품질 차별화
 - 사업단계별로 엔젤투자·크라라우드 펀딩^{창업초기} → 푸드테크 전용 펀드('27년까지 1천억원)^{중기} → 벤처 캐피탈^{확장기} 등 자금 지원
 - 푸드테크 기술 인증제를 도입하고('24~), 스타트업에 각종 정책사업 우대
 - 10대 핵심 기술 분야*를 중심으로 기업 주도 R&D를 지원('23~) 하고, 범부처 R&D 사업** (K-푸드테크 이니셔티브) 추진('25~)
 - * ①세포배양식품, ②식물기반식품, ③간편식, ④식품프린팅, ⑤식품 스마트 제조 등
 - ** (규모) 총 3천억원, (기간) '25~'32, (참여기관(안)) 농식품부·과기부·산업부·농진청 등
 - 범부처 민관 합동 '푸드테크 산업발전 협의회'를 구성·운영하여 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, 민관 협력 강화(2월~)
- **(그린바이오)** 창업 지원을 위한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, 혁신 기술 개발 및 산업거점 육성
 - 바이오 분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그린바이오 펀드를 '27년까지 1천 억원 이상 목표로 확대(연 200억원 이상 추가결성 검토)
 - 천연물·곤충 등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평가·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6대 분야 거점 집중 육성('23년 R&D 1,184억원)
 - 바이오 소재의 안정 공급을 위한 첨단농장 및 바이오파운드리* 구축
 - * ICT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연구·개발을 표준화·자동화·고속화한 시설



조리로봇



식물성 원료 기반 만두



식물기반 돼지열병 백신

2-1. [스마트팜] 주요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 조성 등 진출 기반 확대

* 주요 수출국: 일본, 중국 등 기자재 중심 → 최근 중동 등 플랜트로 다변화 추세

○ (거점 조성) 시범온실 신규 조성 등으로 스마트팜 수출 거점화

- (시범온실) 중동*·호주 등에 현지 맞춤형 시범온실을 조성하여 K-스마트팜 기술을 홍보하는 거점으로 역할

* (일정) 신규 진출국 선정^{3월} → 현지 협력기관 발굴^{9월} → 협약체결^{12월} → 착공²⁴ → 완공²⁵

** 기 조성된 카자흐스탄, 베트남 온실은 바이어 초청행사 등에 활용

- (ODA 등) 아시아지역 등에 조성한 온실*을 활용, 스마트팜 기술 인력 육성 및 생산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

* ODA: 필리핀(20~23), 베트남(21~24), 캄보디아(21~24), 인도네시아(21~25), 우즈베키스탄(22~26)
R&D 협력: UAE에 조성한 실증온실을 활용, 양국 간 기술협력 공동심포지움 개최(4월)

사례: ODA 활용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진출·수출

- (주)신한에이텍: 동남아 스마트팜 ODA(필리핀, 베트남) 수주 실적을 적극 활용하여 키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 등 해외 진출 확대
- (주)엠에스: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ODA 참여 경험을 기반으로 아랍에미레이트(UAE)에 컨소시엄 기업으로 참여하는 등 해외 진출 모색



○ (협력체계) 국가 간 스마트팜 협력, 타 산업분야 협력 MOU 등 추진

- (국가간) UAE·사우디·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 스마트팜 협력 MOU 체결·개정, 스마트농업 진출 거점 국가 발굴

* 공동위원회 설치 및 정례회의 개최 등 실질적인 이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

** 쿠웨이트 농수산청-한국농어촌공사 간 농업기술단지 조성 MOU 체결('23.上)

- (산업간) 해외건설협회-스마트팜협회 간 상생협력 MOU를 체결, 해외 대형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 추진

* 실무 협력의제 발굴, 상생협력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논의

○ **(자금·인력)** 수출업계에 민간자금 유입 확대 및 기술인력 양성

- (자금) 스마트농업 펀드^{200억원}, 스마트팜 수출용자 조성^{1천억원} 등 스마트팜 전용 자금지원 체계 마련

- (인력)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 수료 청년 대상 해외 취업 프로그램 운영*, 수출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 양성

* 수출기업 인력수요 파악^{2월} → 해외취업 희망자 모집^{5월} → 시범운영^{7월}

○ **(마케팅·네트워크)** 상담회·박람회 개최 및 정례협의체 운영

- (마케팅) K-스마트팜 로드쇼(중동, 동남아)를 통해 비즈니스 상담회를 실시하고, 정부차원에서 현지 바이어-수출기업 연계를 적극 뒷받침

* '포럼 + 시식회' 형태 구성, 특색 있는 농산물과 스마트팜의 공동 진출

- (정보제공) 주요 수출국 시장분석 정보제공, 수출기업 상담·지원 및 주요 국제 박람회에 업계 참가 지원

▪ 스마트팜 해외진출전략 조사*, 해외 바이어 대상 기술력 소개·홍보

* 해외 스마트팜 시장·산업 환경 및 마케팅 전략 등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(12월)

- (네트워크) K-Food⁺ 스마트팜반, 한-중동 민관협력 추진위원회 농수산분과위 등 정례 협의체 운영으로 업계 애로 밀착 지원

* 스마트팜 수출지원단(22.9~)을 통해 현지 바이어 연계, 마케팅 지원 등 연중 기업 지원중

○ **(K-Food⁺ 스마트 수출단지)**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스마트팜 단지 (100ha 규모)를 조성, 기업·농업인 참여를 통해 농식품 수출 거점화

* 조성 기본계획 마련^{3월} → 정책연구용역^{'23상} → 사업모델 수립^{'23말} → 단지 조성^{'24~}

2-2. [농기자재] R&D로 기술 경쟁력 지원, 국제박람회 등으로 新시장 개척

* 주요 수출국: 미국(농기계), 태국(비료), 농약(중국) 등 / 주력 품목: 트랙터, 복합비료 등

- **(농기계)** 기술개발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박람회·자금 등 업계지원
 - (기술개발)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('23~)*을 통한 수출농기계 실증, 자율주행·전기·수소 농기계 R&D** 지원 등 추진
 - * 총 1,092억원(새만금 100ha: 논·밭, 주행 실증단지 95ha, 검·인증 분석동 5ha), '23~'26
 - ** 자율주행 핵심부품 국산화 및 친환경 동력원 기술개발 지원('22~'26, '22: 110억원→'23: 148)
 - (박람회·자금) 독일 하노버(11월) 등 주요 국제박람회에 업계 참가 지원, 원자재 구매자금 규모·지원한도 확대 및 수출업계 우선지원
 - * 규모 확대('22: 2천억원 → '23: 3), 지원한도 확대('22: 500억원 → '23: 600)
- **(종자)** 종자 K-브랜드화 및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등 통한 수출 지원
 - (K-Seed 브랜드화) 종자 수출 전용 통합 브랜드 마련으로 경쟁력 강화
 - (기술개발) 해외 적응성 높은 종자 품목 다양화*, 우수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** 조성 등 추진
 - * (현재) 배추 등 채소종자 → (개선) 멜론, 화훼 등 품목 다양화
 - ** 김제공항 부지 무상관리전환(국토·기재 협의) 및 타당성 용역을 거쳐 예타 추진
 - (박람회) 국제 종자박람회(10월, 김제)에 전시관 운영,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등을 추진하여 종자업계 수출 지원
- **(비료·농약)** 비료·농약 수출 위한 자금 지원 및 정보제공 확대
 - (자금) 비료 수출 위한 원료구매자금(6천억원, 3%) 지원 품목 확대(9개 품목→12), 수입 원재료 부담 경감용 관세 인하, 인·허가 취득비용 지원
 - (정보제공) 주요 수출국 시장분석 및 대면 수출상담 등 지원

2-3. [동물용의약품] 신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국·품목 다변화

* 주요 수출국: 네덜란드, 베트남, 브라질 등 / 품목: 원료, 화학제제, 의료기기 등

- **(시장개척)** 주력 시장 수출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
 - (주력국: 중동, 동남아 등)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전시회(태국, 터키, 캄보디아, UAE) 단체 참가 지원
 - * '한국관'으로 통합부스(전통 문양 장치 등 활용)를 운영하여 성과 극대화
 - (유망국가: 러시아, 중국) 시장규모에 비해 수출비중이 높지 않은 수출 유망국가와 네트워크 구축 및 시장개척단 파견
 - * 수출국 담당 공무원, 전문가, 바이어 등을 초청하여 네트워크 구축·인허가 절차 등을 소개하고, 수출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 파견
 - (선진국: 미주·유럽) 선진국 GMP* 기준에 부합한 수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('23년 2.5억원)
 - * GMP(Good Manufacturing Practice) : 의약품 등의 안전성·유효성을 보장하는 관리기준

사례: 해외 GMP 인증 획득·수출

- 동물약품업체 (주)이글벡은 유럽진출을 위해 '13년부터 제조시설을 신축하고, '17년 국내 최초로 유럽수출요건인 EU-GMP 획득
- '22년 폴란드, 체코에 소 구충제 제품(품명 : Oriverm)을 등록하여 '23년 본격 수출 예정(10만불 이상)



- (제도지원: 중국) 동물용 의료기기 GMP 적용이 의무인 중국 수출 희망업체에 한해 GMP 인증 제도 신설
 - * '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(농식품부령)' 개정을 통한 수출용 의료기기 GMP 제도 도입
- **(수출국·품목 다변화)** 업체별 특화품목을 수출희망국에 허가·등록하기 위한 「수출혁신품목육성*」 지원 강화('23년 20억)
 - * 수출국 요건에 맞는 품목개발, 임상·비임상 시험, 등록 및 수출 컨설팅 등 지원
- **(시설구축)** 수출 선도품목(신약 등) 개발을 지원하는 주요 거점시설 구축
 - * 동물용의약품 효능·안전성 평가센터('23, 전북 익산), 창업·신약개발 시제품 생산시설('23~'25, 전북 익산) 등 신제품 개발기반 시설구축

2-4. [해외농업기반시설수주] 전략사업을 타겟팅하고, 국가별 네트워크 강화

* 주요 수주국: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말라위 등 / 분야: 댐개발, 관개 및 배수시설 등

- **(정보수집)** 한국농어촌공사-민간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**협의체** 구성
 - 해외 농업기반시설공사 **발주 정보 수집·공유**(매월 정례회의)
- **(용역수주)** 수주 가능성이 있는 **전략국가(12개)**를 타겟팅하고 현지 진출기업과 **컨소시엄**을 구성하여 설계·감리 등 용역사업 수주 확대
 - * 아시아 4개국(인도네시아, 베트남, 필리핀, 미얀마), 아프리카 6개국(에티오피아, 케냐, 탄자니아, 우간다, 말라위, 세네갈), 중남미 2개국(볼리비아, 엘살바도르)
- **(시공연계)** 농어촌공사의 타당성조사·설계(ODA사업 등)시 **국가별 수요와 우리 기술력을 감안한 맞춤형사업*** 제안
 - * 방조제 및 해안개발, 댐·관개시설 공사 등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 등
 - 향후 본사업을 국내 민간기업의 시공 수주로 연계

2-5. [반려동물 연관산업] 펫푸드·펫테크 등 유망산업 수출경쟁력 강화

* 주요 수출국: 미국, 일본, 중국 등 / 분야: 펫푸드, 펫테크(용품 포함), 펫헬스케어

- **(R&D)** ①기능성 펫푸드, ②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·의료기술 등 수출 전략 분야 R&D 확대(~'26년, 314억원)
 - ①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처방식, 기호성 사료첨가제, 곤충원료 활용 기능성 사료 등
 - ② 피부질환 치료제, 면역세포 치료제, 지속형 항생제, 갑상샘 질환 치료제, 혈액 대체제, 인공보형물 재료, 뇌질환 진단키트 등
- **(수출 지원)** 펫테크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지원체계 구축
 - 펫숍 관계자 대상 **K-Pet Food Fair(5월)** 등 판로개척 행사 개최
 - 관계부처 '**수출지원협의체**'를 구성·운영하여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 및 정보(박람회, 시장정보 등) 제공('23)
- **(제도개선)**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 마련 및 표시기준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추진
 - 선진국의 펫푸드 분류체계 조사·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('23)

3-1. K-Food⁺ 수요가 높은 신규 지역으로 진출 확대

- **(시장 다변화)** 최우선 전략국*(8개국) 선정, 주요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매칭으로 한국 농식품 시장 확대

* 수출 확대 가능성(수출 증가율, 실적), 현지 진출여건(소득수준, 물류, 유통환경 등), 한류 영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, 독일, 영국, 캐나다, 멕시코, 호주 등이 대상

- 시장개척요원을 파견하고 바이어 발굴을 통해 역량있는 수출기업의 현지 개척활동 기반 마련



* 청년개척단 파견(3월) → 세일즈로드쇼 (5~10월 순차개최) → 다변화 마케팅(하반기)

< 음료류 소비자 체험행사('22, 캐나다) >

- 일·중·EU 등 국제 식품박람회(24회), 바이어 초청 상담회(2회)로 거래선 확대
- 농식품 수출에 특화된 aT 지사를 확대('23: 브라질, '24: 독일)하고, K-Food 홍보·판매 거점인 안테나숍을 중남미·중동 등에 증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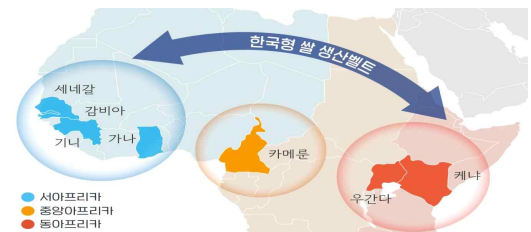
- **(K-콘텐츠)** 호감도 높은 한류 활용 K-Food 이미지 제고

- K-팝 콘서트 등 대규모 한류 행사 연계 소비자 홍보 확대

* 베트남 하노이, 인니 자카르타 등에서 한류와 연계한 K-food 페어 개최 추진(7회)

- 드라마, 예능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 간접광고를 통해 동남아·중동 등으로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(문체부 등 4개부처 협업)
- 파리·뉴욕·도쿄 등 주요도시 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('23: 20개소)

- **(ODA)** K-Rice Belt ODA 참여국 등에 트랙터·수확기 등 우리 농기계 보급 확대, 지속적인 수요로 연계



- 중고 농기계 시범지원 및 수리센터·임대사업소 설치 추진

* 세네갈 현지 타당성 조사(2월) 및 농기계 지원협력 MOU 체결(6월)

3-2. 주요 수출 품목 마케팅 지원 강화

- **(신선농산물)** 딸기·포도·배·파프리카 등 주요 수출품목 아세안, 중동 등 신규 시장 공략 강화
 - * 딸가포도는 출하기에 맞춰 UAE 등 중동 유통매장 내 판촉, 파프리카는 중국 소비자 홍보 확대
- **(가공식품)** 업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및 마케팅 강화
 - (전통식품) 타국 유사제품과 차별성을 부각토록 국산 김치·장류·인삼 등의 우수성·기능성을 홍보하고, 한류 연계 레시피 개발·확산
 - * (예시) 한류스타가 즐겨먹는 김치볶음밥·떡볶이 레시피를 현지 입맛에 맞게 개선·홍보, 인삼은 한류와 연계하여 젊은층 대상 간편섭취 제품(홍삼제품) 홍보 등
 - (음료·주류) 에너지·기능성 음료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, MZ세대·여성층 대상 저도수·과일 주류 수출 확대
 - (라면·스낵) 검역·안전 이슈 등에 대응하여 정보제공 강화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고 K-콘텐츠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확대
 - (쌀가공식품) 해외수요가 높은 즉석밥, 떡류(떡볶이용 등) 해외인증(글루텐프리·할랄 등) 취득 지원, 한류 활용 마케팅 추진
 - * 글루텐프리 전문 박람회 참가 지원, 한류콘텐츠 활용 떡볶이 등 간편조리법 홍보 등
- **(신산업)** 푸드테크, 그린바이오, 펫푸드 분야 정보제공 및 판로개척 지원
 - (푸드테크) 미국, 유럽 등 대상 식품 규제·인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, HMR·대체식품 등 품목 특성에 맞는 유통망 개척 지원
 - * (예시) HMR류는 온라인 한국식품관 등 진출 지원, 대체식품은 식자재시장 공략 등
 - (그린바이오) 제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 제품 해외인증·등록 등 취득비용을 지원하고, 정보제공 강화

◆ K-Food⁺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, 자금지원 등 수출확대 기반 정비

- **(수출본부)** K-Food⁺(플러스)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구성, 민·관 협력을 통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·운영(1.26.~)
 - * 농식품, 스마트팜, 농기자재, 동물용의약품, 해외농업기반시설 등 5개반으로 구성
 - 규제개선·협력과제 발굴 및 주기적 수출 상황 점검 등 업계와의 소통 플랫폼으로 운영
 - * 장관 수출현장 방문(월 1회) 및 수출업계 분야별 간담회(분기별 1회)
-
- **(자금지원)** 농식품부 내 K-Food⁺ 금융·투자 지원단을 구성·운영하여 민간·정부 자금의 K-Food⁺ 유입 활성화 지원
 - * 농식품부 내 수출·스마트농업·식품·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7개 분야로 구성
 - 해외 펀드, 범부처 정책금융(금융위 주관, '23년 2.2조원+α), 농식품 수출 펀드(200억원) 등 수출 활성화 재원 적극 활용
 - **(애로해소)** 통상환경 변화와 비관세장벽 강화 대응을 위한 종합 지원
 - 농식품 진출 초기단계인 중남미로 현지 법률 자문기관 지정을 확대하고, 통관·SPS(위생기준 등) 관련 자문 제공도 확대('23: 36개국 117개 기관)
 - 수입식품 검사 강화 등 주요 시장 비관세장벽에 대비, 수출업체 지원 확대('22: 2천만원 → '23: 3)
 - **(정보제공)** 개별 수출업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정보(국가별 검역·통관 제도, 라벨링 규정 변경사항 등) 모니터링 및 제공 강화
 - 농식품 수출유관기관(aT, 검역본부 등)이 보유한 정보를 빅데이터화 하고 AI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검토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	추진시기
1.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		
· 수출농가 계약 이행기준 설정	농식품부	6월
·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등 의사결정체계 정비	농식품부	3월
· 식품기업 대상 원료·원자재 운영자금 지원 확대	농식품부	3월~
· 수출업체 대상 환변동 보험 지원	농식품부	1월~
· 각 분야별 수출기업 대상 융자 지원	농식품부	1월~
· 푸드테크 전용펀드(100억원) 조성	농식품부	6월
· 푸드테크 기술인증제 도입	농식품부	'24년~
·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(200억원) 조성	농식품부	6월
· 수출 유망 신제품 육성	농식품부, 농진청	9월
· 표준재배기술 개발 등 품질개선	농식품부, 농진청	1월~
· CA 컨테이너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	농식품부, 농진청	1월~
· 지역 물류 기반 연구	농식품부	3월~
· 상용화주 저온창고 활용	농식품부	3월~
· 첨단 기자재 보급	농식품부	3월~
· 식품 포장, 소재 등 R&D	농식품부	1월~
· 기능성 식품시장 진출 지원	농식품부	'23년~
· 푸드테크 '23년 식품 R&D 신규과제 선정	농식품부	3월
· K-푸드테크 이니셔티브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	농식품부	9월
· 그린바이오 첨단농장 공모·선정	농식품부	9월
·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	농식품부	'22~'26
2.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	농식품부	
· 호주 스마트팜 데모온실 조성	농식품부	12월
· 중동 등 신시장 스마트팜 데모온실 조성	농식품부	1월~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	추진시기
· 쿠웨이트 농수산청-농어촌공사 간 농업기술단지 조성 MOU 체결	농식품부 (농어촌공사)	6월
· 해외건설협회-스마트팜산업협회 간 상생협력 MOU 체결	농식품부	3월
· 현지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시범운영	농식품부	7월
· K-스마트팜 로드쇼(비즈니스 상담회 등) 추진	농식품부	4월, 10월
· 스마트팜 해외진출 전략보고서 발간	농식품부	12월
· K-Food+ 수출 스마트팜 단지 조성	농식품부	'24~
· 아프리카 ODA 활용 농기계 시장 진출 타당성 조사	농식품부	2월~
· 국제박람회를 통한 농기자재 판로개척 지원	농식품부	5월~
· 자율주행 등 첨단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, 농기계 R&D	농식품부	1월~
· 국제종자박람회 개최	농식품부	10월
· 비료 원료구매자금 지원품목 확대	농식품부	1월~
· 전시회 참가 등 동물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지원	농식품부	3월~
·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 및 GMP 컨설팅 지원	농식품부	3월~
· 신약 개발·시제품 생산 및 효능·안전성평가센터 구축	농식품부	3월~
· 수출혁신 동물약품 육성사업 추진	농식품부	3월~
· 발주예정 해외농업기반시설 전략사업 타겟팅	농식품부 (농어촌공사)	3월
3. 수출시장 다변화		
· 한류행사 연계 K-Food 홍보	농식품부, 문체부	1월~
·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	농식품부	10월
· 한류 콘텐츠 연계 PPL	농식품부, 문체부	9월
· 시장개척요원 파견 등 해외 거점 확대	농식품부	2월
· 해외 안테나숍 등 확대	농식품부	1월~
4. 수출 확대 추진체계 정비	농식품부	
· K-Food+ 수출본부를 중심으로 추진체계 구축	농식품부	1월~
· K-Food+ 금융·투자 지원단 구성·운영	농식품부	2월~
· 수출전용 펀드(200억원) 조성	농식품부	6월
· 비관세장벽 대응 및 자문 제공 확대	농식품부	1월~
· 해외정보 제공 및 통합솔루션 시스템 구축	농식품부	'24~